

C-4. The Perio-Restorative approach for Anterior Reconstruction

박종연, 한웅택, 정철웅

광주 미르치과 병원

연구배경

성공적인 수복치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매우 다양하다. 모든 치과 수복물은 치주적으로, 교합적으로, 심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, 치주와 수복의 관계에서 보면 치주조직의 건강성의 상실은 수복물 뿐 아니라 잔존 치열에 있어서의 기능, 심미성 그리고 수명을 위협하게 되므로, 치주적 고려는 성공적인 수복치료를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Aggressive periodontitis에 의한 치아상실은 치조융선의 변형을 야기한다. 발치 후 주위 연조직과 경조직은 흡수될 것이고 인접 유두의 높이도 감소할 것이다. 연조직은 발치 후 즉시 ovate pontic으로 연조직을 받쳐 줌으로써 연조직의 융선의 외형을 보존할 수 있으며, 보다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soft tissue augmentation을 시행할 수 있다. 이번 증례에서는 combination only-interpositional graft technique을 이용하여 변형된 융선을 수정하였다. 발치 후 경조직 흡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발치 외에 결합조직을 이식하거나, 골 이식, barrier membrane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, 이번 증례에서는 발치되어야 하는 치아를 교정적으로 extrusion시켜 최종 수복물 장착 전에 변연골의 level을 향상시켰다.

연구결과

Aggressive periodontitis에 의해 흡수된 연조직, 경조직을 combined only-interpositional graft technique과 발치될 치아의 extrusion으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보철물을 전치부에 수복할 수 있었다.

결론

상실된 치주조직을 재건하기 위해 연조직 이식술과 발치될 치아의 extrusion을 시행하여 환자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보철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. 하지만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수정된 융선의 연조직, 경조직의 흡수를 예방하는 치주조직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다.